

화순전남대병원, 176억 규모 ‘디지털 의료 플랫폼’ 추진

보건복지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AI 기반 환자 맞춤 치료법 개발

‘K-HOPE’ 통해 2차 암 허브 도약

화순전남대병원이 176억 규모의 디지털 의료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1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025년도 핵심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 지원 플랫폼 구축 및 개발’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76억원이 투입되며, 병원은 ‘K-HOPE(Korea-Hwasun Oncology Precision biomedicine&Experimental trials)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기반 정밀 임상시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아이티아이즈, (주제이에스링크, (주씨앤알리서치 등 디지털바이오 전문 기업들도 산학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실용화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국가 전략 자산인 인체자원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를 인공지능(AI)과 결합해 환자별 맞춤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15년간 4만여명의 암 환자 검체, 유전자 정보, 치료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은 암이라도 유전자나 면역 상태에 따라 환자별 최적 치료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AI 등 최신 디지털 융합기술을 접목해 임상시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공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특히 의료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가상 대조군 생성, 조직고차반응(TCR) 시험 표준화 프로토콜 개발 등을 통해 기존 임상시험 대비 90%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임상시험센터와 가상 임상 프로토콜 플랫폼도 구축해 임상시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연구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대폭 높인다.

총괄 책임연구자인 조상희 임상시험센터장은 “디지털 바이오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 이번 사업은 의료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은 “미래의료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면역백신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3기 선정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고도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정준 병원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화순전남대병원이 미래 의료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중추 기관이자 아시아 암 허브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다”며 “전남도와 화순군의 전폭적 지원에 따른 결실인 동시에 자·산·학·병·연 협력의 대표적 모범사례다”고 전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기독병원은 지난달 23~26일 나흘 동안 직원,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18차 ‘환자안전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진행했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광주기독병원 ‘환자안전 감염관리 주간행사’ 성료

광주기독병원이 ‘Power up! 안전 Go! 감염 Stop!’을 주제로 제18차 환자안전 감염관리 주간 행사를 진행했다.

1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3~26일 나흘 동안 환자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감염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병원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원과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전개했다.

첫날에는 리더십 환자안전 라운딩을 시작으로 병원 경영진이 병동을 돌며 환자 및 직원의 의견을 경청했다. ‘환자안전 Speak Up 캠페인’을 통해 환자가 안전에 관한 내용을 직접 말하게 함으로써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켰다.

행사 기간 동안 의료진과 직원들은 Level-D 보호복 착용 체험과 올바른 손 위생 방법들을 다시 한 번 익히고 낙상 예방, 건강한 식습관 유

도, 근접 오류 신고 독려, 항생제 적정 사용 등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이벤트를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날에는 김상돈 카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교수가 ‘환자 경험은 우리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했다.

이 밖에도 병원 로비에 ‘우리부터 안전한 투약 stroy’ 전시를 열어 각 부서의 다짐과 전략을 공유했으며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기수희 기자

전남대병원 ‘AI, 의료 현장에 들어오다’ 심포지엄

4일 정오...의료정보센터 주최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기조연설

3개 세션 구분...주제 발표 등 예정

전남대병원은 1일 “오는 4일 정오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AI, 의료 현장에 들어오다’라는 주제로 제6회 의료정보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적 센터장의 개회사, 정신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가 ‘AI & Data in Digital Healthcare’를 주제로 기조연설 한다.

첫 번째 세션은 ‘최신 의료AI 동향’을 주제로 기승정 의생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Medical Domain에서 LLM의 활용과 전망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 ▲생성형 AI의 의료기기 관련 한국규제: 인공지능기본법과 생성형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이충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멀티모달 AI 기반 흉부 X-ray 판독문 초안 생성 솔루션 개발 사례 (Deepnoid 현지훈 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두 번째 세션은 ‘의료AI 병원 적용사례’를 주제로 강호철 화순전남대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연세의료원 Y-KNOT 프로젝트: LLM을 이용한 의무기록 작성 (이소연 과이디지털헬스케어 이사) ▲현장 수요 중심의 의료 인공지능/메타버스 사례 (나승대 경북대병원 교수) ▲서울아산병원 BPA 도입 사례 (이원구 서울아산병원 팀장)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세 번째 세션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을 주제로 주성필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아 ▲브릿지 프로젝트: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활용 (정집민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단장) ▲의료정보센터 의료 AI 개발 추진 현황 (사제원 전남대병원 파트장) ▲AI 기반 지역완결형 스마트응급환자 분류·이송시스템 개발 (김동기 전남대병원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기수희 기자

전남대병원, 지역의료 연구 역량 높인다

보건복지부 사업 호남권 유일 선정

96억 규모...2027년 9월까지 진행

‘지역 의학연구 네트워킹 허브’ 역할

전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에 최종 선정돼 지역의료 연구발전의 새로운 전기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1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의료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국립대병원 중 5개 병원이 선정됐으며, 전남대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에 이어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연구 분야의 우수한 잠재력을 입증했다.

전남대병원의 ‘광주·전남 융합 코어 기반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은 총96억원 규모로, 오는 2027년 9월까지 약 2년3개월간 진행된다.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원 지자체로 나선다.

사업은 먼저 지역의료 연구 역량 제고 기반 구축을 위해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병원 내에 코어 퍼실리티(Core Facility·거점시설) 장비를 마련해 지역 연구자들이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병원은 유전체 빅데이터, 세포 유전자 치료, 바이오 이미징 코어 퍼실리티를 올 연말까지 구축하고 운영 인력을 충원해 2028년부터는 개방할 예정이다.

동시에 병원 중심의 연구 과제를 구성하고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생의료 분야 특화과제 1과제(3세부 과제)와 지역 내 공동연구과제

5과제를 구성 완료했으며, 과제 개시 워크숍 실시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다.

또한 지역의학 연구협력 지원센터를 운영, 지역 내 의학연구의 네트워킹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해 종합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다.

전남대병원의 이번 사업 선정은 지역 내 의료 연구 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연구 모델을 구축하는 선진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과 더불어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이 대한민국 의료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지역의 의료 현안 해결과 동시에 미래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착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